

국내외 관람객 발길 복적... 창업·트렌드의 장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시관마다 ‘풍미 만점’

전주가 발효의 향기로 물들었다. 지난 10월 30일 개막한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전시관마다 풍성한 콘텐츠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전북 유일의 국제 인증 전시회답게 올해 행사에서는 전 세계 발효식품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이번 엑스포에는 유럽·오세아니아·아시아 등 12개국 34개 해외 기업에 참여해 자국의 대표 발효식품을 선보였다. 와인, 발사믹 식초, 홍차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제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으며, 현장에서 펼쳐진 부스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한 외국인 참관객은 “다양한 나라의 발효식품을 한자리에서 맛보고 비교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며 “세계의 식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생생한 전시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내기업관은 선도식품관, 상생식품관, 해양수산관 등으로 꾸며져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식품 산업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장류, 절임류, 전통주, 차, 건강식음료 등 3,000여 종에 넘는 상품이 관람객의 호감을 자극했다.

특히 전북식품명인대전과 제1회 전북향토음식홍보전이 연계 개최되어, 명인의 제조 시연과 쿂� 클래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장에선 “이런 전시회는 처음 본다”는 감탄이 쏟아졌다.

엑스포 현장은 연일 인파로 북적였다. 월드옥타, 한국치즈과학고 등 단체 관람객을 비롯해 식품 관련 예비창업자와 무역 관계자, 대학생 등 다양한 방문객이 몰리며 활기를 더했다.

식품 창업을 준비 중인 김우현 씨(대전)는 “이곳에서는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 반응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며 “식품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꼭 와야 할 박람회”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고향 전주를 찾은 임태현 씨는 “야외 행사인데도 세련되고 짜임새 있다”며 “전주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캐나다에서 온 교환학생 클라우디아 폭스 씨 역시 “한국 발효식품의 다양성과 깊이를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전주이강주가 인상 깊었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은미 전북비이오통합산업진흥원장은 “발효식품은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다”며 “전북의 발효 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계속됐다. 발효의 풍미와 산업의 미래가 어우러진 현장 전주는 지금 맛과 멋의 축제 한가운데 서 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청년세대와 소통 위한 공단 체험 프로그램 진행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전주시 부부에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단 체험 프로그램을 각각 실시했다.

총 65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국민연금 제도 교육, 채용 특강, 역사·홍보전시관 및 사육 탐방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에서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등 최근 연금개혁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고, 채용 특강 시간에는 공단 인사담당자가 채용 절차를 안내하며 현장직의 근무 경험을 공유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국민연금 역사와 공단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홍보전시관 탐방도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뜻깊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시행되는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려는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행사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층과 적극 소통하며, 공단 채용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마음 치유농업 효과, ‘수치’로 증명한다

농진청, 15년 자료 분석해 국내 첫 표준 평가 기준 마련

농업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대, 이제 그 효과를 ‘수치’로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자연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명확히 비교·평가할 수 있는 표준 평가 기준을 국내 최초로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년~2024년까지 15년간 수행된 치유농업 관련 실험연구 1407건을 정밀 분석해 총 6개 심리·사회 지표를 도출했다. 이는 치유농업 분야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핵심 지표들로, 부정 정서 3개(스트레스, 우울, 불안)와 긍정 정서 3개(자아존중감, 자 기효능감, 대인관계)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치유농업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평균 15.1%, 우울은 19.4%, 불안은 1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14.3%, 자기효능감은 9.9%, 대인관계는 13% 향상됐다.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의 매우 높은 효과 수준을 보였다.

이는 국제적 통계 기준인 코헨(Cohen, 1988)의 효과 크기 관점에서 표준편차 0.6~0.9 이상의 유의미한 개선을 나타낸 수치로, 치유농업이 심리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셈이다.

이번 기준이 마련되면서 앞으로는 대상자 간 비교 실험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주요 지표 변화를 표준값과 비교해 효과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평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각지의 치유농업 기관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집계·비교함으로써 성과 관리의 일관성과 정책 확산의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공 전북·장수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조성사업’ 현장 중심 체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장수군의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수탁 협약 후 본격 추진 중이다.

최근, 전북지역본부는 장수군 지역협력과 본사 농촌공간계획처 및 지역개발지원과 함께 ‘농어촌체류형 쉼터 리빙랩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

리빙랩(Living Lab)은 공공기관, 지자체, 학계, 민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는



현장 중심 혁신 플랫폼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강화 △체류자의 실제 이용 시나리오 기반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체류형 쉼터 운영·관리 체계 마련 등 핵심 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요류를 공유·개선하고, 사업 기간뿐 아니라 준공 이후 운영·관리 단계까지 리빙랩 제도화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운영·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노란우산 가입 놓치지 마세요”

중기중앙회, 온라인 가입 시 ‘소상공인사랑상품권’ 지급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이 11월에도 풍성한 혜택을 이어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이달에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시작된 이번 프로모션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노란우산 앱 또는 공식 홈페이지(PC·모바일)에서 신규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한다.

7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가입자는 약 1만8,000명에 달하며, 지급된 상품권 규모만 7억3천만 원에 이른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하는 모바일 소비쿠폰으로, 전국 202만 개의 제휴가맹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노란우산의 보호 혜택을 받는 동시에, 상품권 소비를 통해 다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생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프로모션 이후 온라인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나면서 노란우

산이 ‘자장님’이라면 꼭 가입해야 할 필수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돕는 공제제도다.

월 납입금액은 5만~10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납입금 전액에 대한 복리이자 적용, 필요 시 부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법률·세무·노무 등 경영자문 서비스와 단체상해보험(2년간 무료 가입) 등 복지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프로모션은 단순한 가입 혜택을 넘어 소상공인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APEC 정상회의 무정전·무사고 달성

전기안전공사, 행사 기간 철저한 전기 안전 관리로 성공적 마무리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무정전·무사고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행사 기간 동안 철저한 전기 안전 관리로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인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기안전대책 본부를 현장에 설치하고, 88명의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하며 전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이와 함께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국립경주박물관 등 주요 행사장에 대해 23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사장과 숙박시설 등 총 70개소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성 점검을 마쳤으며, 유관기관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역량을 높였다.

남희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행사의 완벽한 진행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전기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무사고·무정전 성공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역량과 체계적인 준비가 빛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